

# ‘주4일제’ 기대감?…중소기업 ‘기대반 우려반’

### 지난해 광주 취업자 12.9%·전남 11.0% ‘주 52시간 초과’ 주당 평균 취업시간 광주 39.7시간·전남 38.6시간 ‘소폭 증가’ 여행 등 소비 늘고 워라벨 실현…생산성 감소·인건비 부담 의견도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른 가운데 여야 주요 후보들이 ‘주4일제’ (주당 32시간) 근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는 등 노동시간을 줄이는 제도 시행은 국내외로 보편적 추세다. 하지만 기업 생산성과 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취업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 비율은 광주 12.9%·전남 11.0%로, 전년보다 각각 0.6%포인트 늘고 0.2%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광주 전체 취업자 74만5000명 가운데 9만6000명, 전남은 98만5000명 중 10만8000명이 주

53시간 이상 일을 했다. 전국 평균 비중은 11.4%였다.

이는 주5일제(주40시간 근무)를 시행한 2005년(광주 38.2%·전남 33.8%)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다.

주5일제는 지난 2005년 300인 이상 기업이 도입한데 이어 2006년 7월 100인 이상, 2007년 7월 50인 이상,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됐다. 학교도 중소기업의 시행시기에 맞춰 주5일제 수업을 도입했다.

지난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광주 39.7시간·전남 38.6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7시간, 0.2시간 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

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광주·전라·제주권이 40.0시간으로 나타났다. 지역 청년들의 근로시간은 서울(39.5시간)과 인천·경기(39.5시간)보다 많았고, 대전·충청·세종·강원(42.8시간), 부산·울산·경남(41.8시간), 대구·경북(40.6시간) 보다 적었다.

지역 청년들의 월 소득은 182만6000원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188만9000원)과 인천·경기(198만4000원)보다 각각 6만3000원·15만8000원 뒤떨어졌다.

주4일제 도입은 일과 일상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벨’ 문화가 퍼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취업정보사이트 사람인이 지난 연말 기업 279개사를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주당 32시간 근무)’에 대한 생각을 묻자 42.7%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같은 주제로 성인 415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6.4%만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결과와 대조적이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32.8%)보다 중소기업(45.4%)이 주4일 근무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12.6%포인트 높았다.

주4일 근무제가 부정적인 이유로는 ‘생산성이 감소할 것 같아서’(45.4%·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인력 증원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 것 같아서(41.2%) ▲임금 감소로 직원들의 불만을 줄 것 같아서(31.9%) ▲근무 계획·인사 체제 등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24.4%) ▲업무 강도가 높아져 불만이 생길 것 같아서(17.6%) 등 순이었다.

반면 주4일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160개사는 그 이유로 ‘충분한 휴식으로 직원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62.5%·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60%)가 뒤를 이었고 ▲산업구조·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서(16.3%) ▲직원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15.6%)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서(12.5%) 등이 있었다.

전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7.5%)은 주4일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26.5%, ‘약간 준비돼 있다’는 응답은 13.6%였으며, ‘매우 잘 돼 있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기업 28.7%는 주4일이나 4.5일 등 주5일 미만 근무제 도입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중 20%는 실제로 주5일 미만 근무제를 시행 중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주4일제는 유권자 대다수가 환영하는 제도이다 보니 주요 후보들은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공개된 대선 후보자 공약을 보면 집권 여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 4.5일제 단계적 실시 등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10대 공약에 넣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자율적인 주4일제 도입을 내걸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리 원유 제재에 국제유가 출렁...산업계 ‘시름’

### 전국 휘발유 ㄷ 당 27.01원 올라 1880.1원...8년만에 최고 정유사 수급 차질...화학·항공·전자 업계 등 수익성 악화 우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국제유가가 또다시 출렁였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유가 변동에 따라 산업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고유가인 상황에서 이번 제재로 국제 유가가 더 오를 경우 피해가 가중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석탄을 수입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원유 수입 제재는 유가 급등을 초래해 미국에도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러시아 경제 고립을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영국 역시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유 수출국이며, 하루 450만 배럴가량의 원유와 250만 배럴가량의 원유 관련 상품을 수출한다.

미국과 영국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 소식에 수급

차질 우려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한때 배럴당 129.44달러까지 올랐다가 결국 123.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장보다 4.30달러(3.6%) 오른 것으로, 증가 기준으로는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다.

국제유가 상승효과는 해외에서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내 기름값으로 전가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27.01원 오른 ㄷ당 1880.1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3월 이후 8년 만에 최고가다.

이날 광주지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1871.10원으로 전남은 1857.04원으로 나타났다. 이미 휘발유 가격 2000원이 넘는 주유소도 나오고 있다.

국내 산업계에 전방위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제재에 대해 동참 여부는 각국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지만, 국내 정유사들은 수급 차질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당장 대체 수급처를 모색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유가가 오르면 단기적으로는 재고 이익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석유제품 수요가 위축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실제로 정유사의 핵심 수익 지표인 정제마진은 이날 첫해 주 배럴당 5.7달러로, 전주(6.9달러)보다 1달러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항공·전자 등 다른 업계도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라 비용 부담이 커졌다. 화학업계의 원재료인 나프타는 원유에서 추출되는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나프타 도입 가격은 연일 오르고 있다. 수요 위축을 우려하는 화학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만큼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밖에 항공업계와 해운업계도 연료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고, 전자·반도체, 배터리 업계 역시 물류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농협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학교 급식에 오를 친환경 농산물을 포장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전남 친환경 농산물 경기도 학교 간다

### 농협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1년간 6t 규모

전남 친환경 농산물 6t이 경기도 학생들 식탁에 오른다.

농협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는 친환경 농산물 6t을 경기도 학교급식으로 첫 출하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학생들의 밥상에 오르는 전남 농산물은 모두 6t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2개월 동안 생산되는 품목이다.

친환경 농업으로 키운 배추와 간마늘, 멜론, 시금치, 블루베리, 배, 감귤류, 무화과, 고구마, 감자, 양파 등이 있다.

센터는 지난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022년 경

기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의 농산물 공급업체에 선정됐다.

지난 2017년 10월 나주에 문을 연 이래 지금까지 74개소에 이르는 대외 판로와 212개에 이르는 친환경 농가 공급처를 확보해왔다.

개장 5년차를 맞은 지난해에는 친환경 농산물 매출 13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판매 목표는 200억원 이상이다.

센터는 정부의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종합물류센터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현대차 아이오닉 5, 자동차의 미래 같다”



### 영국 ‘가장 경쟁력 있는 차’ 선정...“디자인·성능·실용성 등 모든 면에서 우수”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영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차로 선정됐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최근 아이오닉 5가 세계 유수의 자동차를 제치고 ‘2022 영국 올해의 차’(UK Car of the Year 2022)로 최종 선정됐다.

‘영국 올해의 차’는 탑기어(TopGear) 등 영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각 부문별 최고의 자동차에 뽑힌 10개 차종을 대상으로 선발되며, 이 가운데 아이오닉 5가 최종 선정됐다.

최종 후보에 오른 각 부문별 최고의 자동차는 ▲피아트500-e(부문상 : Best City Car) ▲스코다 파비아(Best Supermini) ▲기아 씨드(Best Small Hatch) ▲아이오닉 5(Best Family)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Best Estate) ▲도요타 야리스 크로스(Best Small Crossover) ▲스코다 엔야크(Best Medium



‘영국 올해의 차’ 편집장 존 챌린(왼쪽), 현대차 영국법인 대표 애슬리 앤드류.

Crossover) ▲BMW iX(Best Large Crossover) ▲포르쉐 타이칸(Best Luxury) ▲현대차 i20N(Best Performance) 등이다.

영국 올해의 차 편집장 존 챌린(John Challen)은 “아이오닉 5가 자동차의 미래처럼 느껴진다”며 “특히 아이오닉 5는 디자인, 성능, 실용성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췄으며, 전기차를 찾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영국 올해의 차로써도 손색없다”고 밝혔다.

아이오닉 5는 앞서 유럽 전역에서 여러 차례 호평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2022 독일 올해의 차’(German Car Of The Year)에 선정된 데 이어, 아우토 빌드(Auto Bild) ‘최고의 수입차’(Best Import Cars of the Year) 전기차 부문 1위, 아우토 타이퉁(Auto Zeitung) 전기차 비교평가 종합 1위에 올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코트라, 글로벌 의료기기 온라인 수출상담회

### 10~11일 45개국 430개 바이어 참여

코트라는 ‘2022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GMGP 2022)를 10~1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10~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2)와 연계해 마련됐다.

수출상담회에는 전 세계 45개국 430개 바이어가 참여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장비, 치과 기자재, 의료용품 분야의 우리 기업 192개사와 교류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기업들은 전시장에 마련된 가상 상담장을 활용해 해외에서 접속한 바이어들과 상담하게 된다.

10일에는 코엑스 그랜드 콘퍼런스홀에서 ‘글로벌 의료기기 콘퍼런스’가 함께 열린다.

인공지능(AI) 진단기술, 디지털 치료제 등 정보기술(IT)과의 융합을 비롯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를 조명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선보이는 자리다.

세계 최대 의료기기 업체인 미국의 메드트로닉이 ‘디지털 전환의 시대,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다.

아울러 올해 초 개최된 ‘CES 2022’에서 혁신상을 받은 국내기업 히포티앤씨와 웨이센이 각각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디지털 치료제와 AI 기반 소화기 내시경 영상분석 기술을 소개한다. 이밖에 SK C&C, 메디블록, 초이스테크놀로지 등이 AI 진단기술, 블록체인의 활용 의료정보시스템, 무선 체온측정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선보인다.

코트라는 콘퍼런스에서 소개되는 우리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홍보 동영상으로 제작해 해외 시장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중진공, 벤처기업 스마트진단 때 전문가 솔루션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스마트진단시스템에 전문가의 솔루션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9일 밝혔다.

비대면 스마트진단시스템은 기업이 일반 현황과 재무, 채용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회사 역량 등에 대한 진단 결과와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이와 함께 전문가가 제공하는 솔루션 서비스도 받

아볼 수 있다.

전문가는 정량 데이터와 함께 외부환경, 사업성과, 내부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준다. 기업은 10일 이내에 전문가의 종합 의견이 포함된 최종 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